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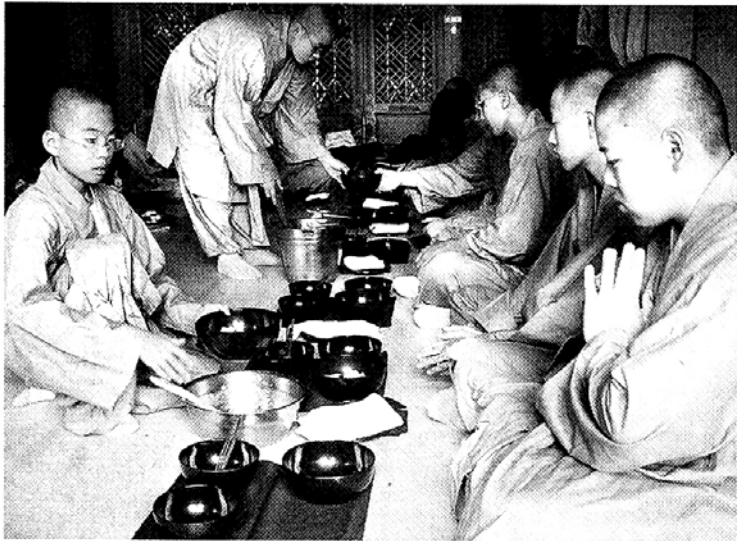
청소년 24명 28일간 해인사 백련암 단기출가

“몸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몸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7월 23일 해인사 백련암, 적광전을 울리는 참회진언. 장래할만한 채 참회진언을 외는 청소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님 앞에서 삭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람

(경기 도장중3)이를 힐끔 쳐다본다. 삭발에 앞서 불단에 촛불과 향을 사르고 수건과 세수 대야를 준비한 후 백련암 원주 일등스님이 삭발의식을 설명할 때만 해도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엄숙함보다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스님 따라하며 참다운 나 찾기”



△해인사 백련암에서 발우공양 중인 24명의 청소년 단기출가자들. 사진=박원구 기자

“발우공양·3천배로 절약·인내심 배워 귀가하면 게을렀던 생활방식 고칠 것”

그러나 정작 우람이의 머리카락이 삭도에 밀려나가자 입으로만 외던 참회진언마저 찾아온다. “성불하세오”라는 합장 반배와 함께 시작된 삭발은 24명이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이어졌다. 머리카락이 말끔히 잘려나가자 아이들의 손은 자주 머리로 향한다.

해인사 백련암 청소년 단기출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27일동안 진행되는 단기출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학생 21명, 여학생 3명이 참가했다. 8번째 이어오고 있는 백련

암 단기출가에서 삭발식은 오랜 전통. 부모, 학교, 친구 등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다짐, 못된 버릇을 잘라버리겠다는 서원을 담은 의식이기 때문이다.

삭발을 마친 24명은 심전 법사와 일등스님의 지도아래 4주 한달동안 ‘출가자’로 스님과 똑같은 생활을 해나간다. 묵언정진, 새벽예불, 발우공양, 매일 6백~1천배씩의 능엄주기도, 대중 율령, 선체조 등 어느것 하나 쉽지 않았다. 우람이는 “성당에 다니시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발우공양, 삼천배를 통해서 평소 부족했던 인내심, 절약 등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의젓하게 얘기한다. 제일 만행인 기훈인천 백석고 2이도 “힘들지만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소중한 것”이라며 씩 웃어 보였다.

3주가 지난 9일, 이제 땀만큼 힘든 일도 척척 해내는 단기 출가생들이지만 입을 모아 첫 날, 삼천배가 있던 날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참가한 것을 후회하며 부모님을 원망했고 몇몇은 백련암을 내려갔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살 배려고’ 등이 출가가 동기인 아이들로서는 당연한 반응. 그러나 삼천배가 끝나자 아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다. ‘힘든 일을 해냈다’는 자신감이 솟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다. 혜원(서울 운중 3이도) “집에 돌아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등 게을렀던 내 생활을 고치겠다”며 부모님께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어느새 밤송이만큼 자라난 머리카락만큼 출가생들 마음의 세계도 추욱 자랐을까. 모두들 일주일 정도 남은 회향(18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내로 체득한 진정한 출가정신은 청소년들이 돌아간 일상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합천=천미희 기자

“불교는 앎 추구 과학·심리학 과학시대 영성 줄 유일 代案”

김용욱씨 동국대 강연

“불교는 바른 앎을 추구하는 과학이자 심리학이다. 때문에 무신론적인 과학시대에 영성(靈性)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동양철학의 대중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도올 김용욱(前 고려대 철학과 교수)씨가 원시불교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김용욱씨는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이장장 윤천수가 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주최한 ‘불교의 본래 모습-달라이라마를 만난 후’라는 제목의 대중강연에서 “불교는 과학이라는 인과세계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

라면서, 기독교에서 불교로의 세계사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천여명의 불자 및 시민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뉴욕과 인도 등지를 오가며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나눈 대화를 통해, 달라이라마의 간결한 답변과 번뜩이는 지혜에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성스럽게서는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입니다.” 김씨는 달라이라마와의 이같은 대화를 통해 “‘붓다’란 ‘진정으로 안사람’이란 어원처럼 불교가 연기(緣起)의 법칙을 철저히 통찰하는 과학”



△1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용욱씨가 열광하고 있다. 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 김씨는 ‘계(戒)’를 바른 삶으로, ‘정(定)’을 어떤 사물에 집중하는 능력으로, ‘혜(慧)’를 세계에 대한 정확한 앎으로 각각 분석하고 한국불교가 선불교 지상주의에서 탈피,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달라이 라마와 도올의 만남-인도로 가는 길> 통나무 발행, 전3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적과 조연도 잊지 않았 김재경 기자



수해 현등사 진입로 복구논의 △최근 내린 폭우로 일부 사찰들이 천정에서 물이 새고, 진입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사찰 진입로 2km 구간이 유실된 경기도 가평의 현등사도 폭우로 길이 끊겨 신도들의 발길을 막고 있다. 현등사 주지 초격스님이 인근 부대장과 진입로 복구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가평=고영배 기자

서울 공동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조계종복지재단, 신임 관장에 설움스님

조계종복지재단이사장 정태은 2일 서울 구로구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에 들어간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신임관장으로 속초 낙산사 주지 설움 스님을 내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종합복지관은 대지 482평, 건

사회복지법인 내원·범어사 2002년 시니어클럽 사업자로

보건복지부 선정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린)’과 ‘범어사(이사장 성오)’, 대구의 ‘불교사회복지회’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2년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자에 당선됐다.

올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7곳 가운데 부산의 경우 내원시니어클럽과 금정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곳 모두 가 불교계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다양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50~60 곳의 응모 사업자와의 경쟁 끝에 불교

계가 선정됨으로써 전국 18곳의 시니어클럽들이 노인 인구의 자활을 돕는 후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내원시니어클럽의 경우 떡방앗간 사업단, 자판기 설치 사업단, 영농사업단, 상담자문사업단 등 8개 분야로 나눠 노인들의 자활을 돕게 된다. 금정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또한 복지팀, 자활사업팀, 지역사회팀으로 나눠 노인대학, 명상센터, 유기농사업단, 공동육아사업단, 교통봉사단, 자활방방대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자의 생각

법문 서비스

거의 모든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전 내용이나 스님의 법문 등을 제공받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 결과 총 75명의 응답자 가운데 72명

97.3% 제공 원함

27% 원하지 않음

경전내용 등 제공받기 위해 97.3%

(97.3%)이 경전 내용이나 스님의 법문 등을 제공받기 원한다고 응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명(2.7%)에 불과했다.

만약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35명(46.7%)이 이메일, 19명(25.3%)이 우편물, 13명(17.3%)이 소형책자, 7명(9.3%)이 핸드폰문자메시지, 1명(1.3%)이 기타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두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풍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 1 타인최면유도
- 2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 3 원격최면
- 4 전생퇴행최면
- 5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의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법운 선생님의 역력

- 동래고등학교 졸업
- 안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아침 특종뉴스 출연 (순정악)
- '98년 PSB 출발새아침 출연 (관상학)
- 대한 초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이미포 기공회의 회장
- 연·심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동방 최면 전생 연구소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귀중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